

유아의 언어발달과 위축 및 공격성 간의 관계: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서미정¹⁾ 고영아²⁾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언어발달과 위축 및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만 5세 시기에 해당하는 한국아동패널 6차년도 자료 중 415가구를 대상으로 상관관계분석 및 PROCESS macro(model 1)을 이용한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부족한 경우에만 유아의 수용 및 표현언어의 부족이 위축을 가중시켰다. 하지만 유아의 언어발달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유아의 위축을 감소시키는데 있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중요하며, 유아의 언어발달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다양한 조절변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위축, 공격성, 언어발달,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

I. 서론

유아기 행동문제는 생활연령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부적절한 행동으로, 적절한 적응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나타나는 행동양상이다(황혜정, 2005).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문제는 자연스러운 발달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행동문제가 지속될 경우 대인관계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응력을 떨어뜨리게 된다(이승하·민가혜·연규승, 2020). 행동문제는 갈등이 표출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내재화와 외현화 행동문제로 분류된다(Achenbach & Edelbrock, 1979). 내재화 행동문제는 정서적 반응성, 불안, 우울, 신체

* 이 논문은 2023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1) 제주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부 부교수
- 2) 제주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증상, 위축의 형태로 자신의 갈등과 어려움을 과잉 통제함으로써 나타난다. 그 중 위축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무관심하고,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Gazelle & Ladd, 2003). 위축은 교육기관에서 또래와 원만한 관계형성을 어렵게 하고, 기관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고보선·성지현, 2019), 불안이나 낮은 자아존중감 형성과 같은 부적응 문제와 관련된다(Rubin, Coplan, & Bowker, 2009). 유아기부터 발현된 위축은 초기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Sanson, 1996), 성인기에 이르러 우울로 이어질 수 있다(Bell-Dolan, Reaven, & Peterson, 1993). 하지만 유아의 위축은 타인에 의한 관찰이 어렵고, 수줍어 하거나 낮가림과 같은 개인적 특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어(이효림·정효진·정정희 외, 2020), 문제로 인식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되므로 유아기에 보여지는 위축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외현화 행동문제는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갈등과 어려움을 외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나타나며, 주의집중 문제나 공격성 문제를 포함한다. 그 중 공격성은 유아동기에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며(Rubin, Coplan, & Bowker, 2009), 이 시기에 공격성을 보이거나 분노를 나타내는 등의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전은주, 2015). 하지만 유아의 공격성이 지속될 경우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어렵게 하여 또래 거부를 높이는 등의 부적응 행동과 관련된다(서미정, 2014; 송미옥·이경호, 2017; 조채운·권현희, 2014). 또한, 유아기에 시작된 공격성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Tremblay, 2000). 이와 같이 유아기에 발현되는 행동문제는 표출되는 방식과 관계없이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예방적 차원의 조기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유아기 위축과 공격성에 주목한 연구들은 유아기 언어발달과 행동문제의 연관성을 강조하였다(권수진·오새나·이상희, 2016; 박영숙·이영진·이민경 외, 2017; 정진나, 2019; Clegg, Law, Rush et al., 2015; Menting, VanLier, & Koot, 2011). 언어는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주요 수단이 되며, 크게 수용언어와 표현언어로 나뉜다. 수용언어는 언어로 전달되는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을 뜻하고, 표현언어는 의미와 맥락에 맞게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뜻한다(김영태, 2011). 유아는 대략 만 5~6세가 되면 언어를 통해 상대방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상대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최인숙, 2014). 하지만 유아가 사회적 상황이나 문제해결 상황에서 적절히 언어를 사용하여 대처하는 것이 어려우면 위축과 같은 내재화 행동문제 또는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가 많아지는 것이 여러 선행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먼저 유아의 언어발달과 위축과 같은 내재화 행동문제 간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일부 연구에서는 유아의 언어발달 수준이 낮을수록 내재화 행동문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태·강진경·김정아, 2019; 신수진·김현명, 2018; 이승하·민가혜·연규승, 2020). 하지만 일부 선행 연구에서는 유아의 언어발달 수준과 내재화 행동문제 간 관계에서 유아의 언어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내재화 행동문제도 높거나(박영숙·이영진·이민경 외, 2017), 유아의 언어발달과 내재화 행동문제 간의 상관이 없음을 보고하였다(조성웅·김월순·임해진, 2020).

다음으로 유아의 언어발달과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 간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부 연구에서는 유아의 언어발달 수준이 낮을수록 외현화 행동문제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영희·김신곤, 2017; 신수진·김현명, 2018; 정진나, 2019; 조성웅·김월순·임해진, 2020; 조채운·권연희, 2014; Menting, VanLier, & Koot, 2011; Rose, Weinert, & Ebert, 2018). 반면에 유아의 언어발달 수준과 외현화 행동문제 간에 상관이 없다고 밝힌 연구들도 있으며(김영태·강진경·김정아, 2019; 박영숙·이영진·이민경 외, 2017), 유아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가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박영숙·이영진·이민경 외, 2017; 이효림·정효진·정정희 외, 2020).

박영숙·이영진·이민경 등(2017)의 연구에서는 수용언어 수준이 높을수록 내재화 행동문제가 많았으나, 표현언어는 내재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외현화 행동문제는 유아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이효림·정효진·정정희 등(2020)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수용언어 수준이 높을수록 내재화 행동문제는 적지만, 유아의 표현언어 수준은 내재화 행동문제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즉 유아의 언어발달과 행동문제 간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비일관적이며, 유아의 언어발달을 수용언어와 표현언어로 구분하였을 때 각각이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행동문제를 내재화와 외현화로 구분하였을 때 유아의 언어발달이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언어발달을 수용언어와 표현언어로 나누고, 행동문제도 위축과 공격성으로 세분화하여 이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유아의 언어발달과 행동문제 간 관계를 연구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는 것은 이러한 관계를 조절해 주는 변인을 탐색할 필요성을 인식시켜 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절 변인으로 유아의 언어발달 및 행동문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운데 온정적 양육태도는 유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유아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양육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형태를 말한다(조복희·이진숙·이홍숙 외, 1999). 어머니가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며, 유아와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유아의 위축 및 불안이 감소하고(배은희·이소연, 2019; 양명재·방희정, 2014), 유아와 친밀한 시간을 갖고, 유아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온정적이고 수용

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때 외현화 행동문제가 적게 나타났다(김대웅·박윤현, 2018; 이승은, 2018). 또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행동문제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어(배은희·이소연, 2019),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행동문제 감소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유아의 언어발달과도 관련된다. 어머니가 유아에게 행동적으로 수용되는 것과 수용되지 않는 것을 합리적으로 지도하는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우에 유아의 언어발달 수준이 높았으며(김은비, 2012), 유아에게 모방하고 관찰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건과 사물의 특성에 대하여 알려주는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우에 언어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나타냈다(김영실·신애선, 2013). 유아의 언어발달 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비교에서 언어발달이 늦은 유아의 어머니는 일반 유아 어머니에 비하여 놀이 자극을 적게 제공하고, 반응성이 낮으며, 유아의 활동을 통제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하은빈, 2012). 즉 유아의 언어발달이 생활연령에 적합하지 않으면 유아는 어머니의 언어자극에 적절히 대답하기가 어렵게 되고, 어머니 또한 이 상태가 지속되면 유아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선택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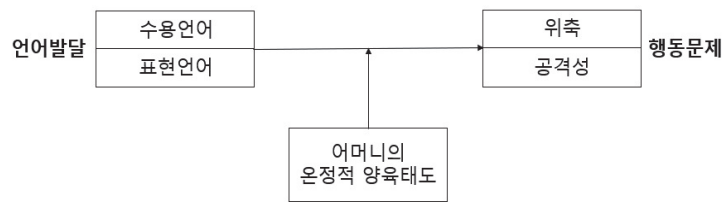
이러한 유아와 어머니 상호 간의 관계를 Chess와 Thomas(1977)는 조화적합성(Goodness of fit)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이 개념에 의하면 유아의 발달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며 유아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이 조화를 이룰 때 최적의 발달을 이룬다고 하였다. 유아의 언어발달도 유아의 발달 특성과 환경적 요구 수준이 조화를 이룰 때 촉진된다(Bishop & Adams, 1990). 또한 유아의 발달을 설명한 거래모델(Transaction Model)에 따르면, 유아의 발달은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유아와 환경이 양방향적 영향을 주고받는 것임을 강조하였다(Sameroff, 2009).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유아의 행동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하여 유아의 발달적 요인인 언어발달과 환경적 요인인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언어발달과 위축 및 공격성 간의 관계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즉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높을 때는 유아의 부족한 언어발달 수준이 위축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유아가 어머니의 온정을 덜 경험할 때는 유아의 언어발달 수준이 낮을수록 위축 및 공격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한편 유아의 성별은 언어발달뿐만 아니라 행동문제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즉 여아의 경우 남아에 비하여 언어발달이 빠르며(윤혜련·김영태, 2004; 임현주, 2018), 남아의 경우 여아에 비하여 외현화 행동문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송미옥·이경호, 2017; 임현주, 2015). 또한 언어발달에서 수용언어와 표현언어의 발달은 서로 상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장선아·김향희, 2001), 유아가 언어를 이해하는 수준이 높으면 자신의 의사를 표

현하는 수준 또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유아의 언어발달과 위축 및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성별 및 다른 차원의 언어영역을 통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아기 행동문제의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언어발달을 수용언어와 표현언어로 구분하여 위축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기 행동 문제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유아의 언어발달 향상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개선을 통한 접근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고, 연구모형은 [그림1]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언어발달(수용언어, 표현언어), 위축 및 공격성,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언어발달(수용언어, 표현언어)과 위축 및 공격성 간의 관계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가?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만 5세 유아와 그 어머니로 하였다. 만 5세가 되면 언어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능숙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분별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것을 감안하여(Denham & Holt, 1993), 만 5세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의 6차(2013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자료는 2008년 4월부터 7월 중에 전국에서 표집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조사가 이루어지는 국가 수준의 중·

횡단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6차 조사에 참여한 1,662가구 가운데 표현언어 발달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진 2차 심층조사에 포함된 415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에서 유아 월령은 60개월~66개월로 평균 62.37개월이며, 남아 238명(57.3%), 여아 177명(42.7%)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가. 행동문제: 위축, 공격성

유아의 위축 및 공격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오경자와 김영아(2009)가 표준화한 유아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for Age 1.5-5: CBCL 1.5-5)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내재화 행동문제에 해당하는 정서적 반응성(9문항), 불안/우울(8문항), 신체증상(11문항), 위축(8문항), 수면문제(7문항)와 외현화 행동문제에 해당하는 주의집중 문제(5문항), 공격행동(19문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주관식 보고 1문항을 포함하여 총 10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위축은 원척도에서 제시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즐기는 것이 매우 적다’,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등의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격성은 원 척도에서 공격행동에 해당하는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말다툼을 많이 한다’, ‘자기 물건을 부순다’ 등의 1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0점)’부터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의 3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행동문제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위축에서 .66, 공격성에서 .86으로 나타났다.

나. 언어발달: 수용언어, 표현언어

유아의 언어발달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영태·홍경훈·김경희 등(2009)이 표준화한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를 사용하였다. 검사는 수용어휘검사와 표현어휘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수용어휘검사는 총 185문항이며, 품사별로 명사 98개, 동사 68개, 형용사 및 부사 19개로 구성되어 있다. 표현어휘검사는 총 185문항이며, 품사별로 명사 106개, 동사 58개, 형용사 및 부사 21개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 진행 시 생활연령에 따라 시작문항을 달리하며, 연속해서 8개 문항을 맞출 경우 기초선이 확립되며, 연속된 8개 문항 중에서 6개가 틀릴 경우 최고한계선을 확립한다. 기초선이 확립되면 기초선보다 낮은 문항들은 맞은 것으로 간주하고, 최고한계선이 확정되면 그보다 높은 문항들은 틀린 것으로 간주하며 각 문항은 1점씩 배점된다. 검사는 표현어휘검사를 먼

저 실시한 이후에 수용어휘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자가 유아에게 질문하면 유아가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수용어휘 및 표현어휘 원점수를 기준으로 언어발달 수준을 파악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발달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조복희·이진숙·이홍숙 등(1999)의 연구를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자체 제작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등의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온정적 양육태도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2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각 변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유아의 언어발달, 위축, 공격성,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유아의 언어발달과 위축 및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조절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model 1)을 사용하였으며, 각 변인은 표준화점수를 적용하여 사용하였다.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경우 Johhson-Nyeman 기법으로 조절변인이 유의미한 범위를 산출하고, 단순 기울기 검증을 실시하여 조절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Aiken & West, 1991).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SPSS 24.0(IBM Co., Armonk, NY)과 SPSS PROCESS macro version 4.2(Hayes, 2017)가 이용되었다.

III. 연구결과

1. 유아의 언어발달, 위축, 공격성 및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

유아의 언어발달, 위축, 공격성,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는 <표 1>에 제시

하였다. 측정된 변인들의 왜도는 -1.27에서 1.39 범위에 있고, 첨도는 .14에서 2.19 범위에 있으므로 정규성 조건(왜도<2, 첨도<4)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ong, Malik, & Lee, 2003).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아의 수용언어는 표현언어($r=.502, p<0.001$)와 정적 상관을 나타내, 수용언어 수준이 높을수록 표현언어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수용언어는 위축($r=-.131, p<0.05$) 및 공격성($r=-.127, p<0.05$)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 수용언어 수준이 낮을수록 위축 및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표현언어도 위축($r=-.125, p<0.01$) 및 공격성($r=-.170, p<0.05$)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 표현언어 수준이 낮을수록 위축 및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위축($r=-.254, p<0.001$) 및 공격성($r=-.269, p<0.001$)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위축 및 공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수용언어, 표현언어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의 언어발달과 성별 간에는 수용언어($r=-.193, p<0.001$) 및 표현언어($r=-.101, p<0.05$)에서 부적 상관을 나타내,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수준이 여아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위축은 공격성($r=.560, p<.001$)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 유아의 위축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측정변인들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N=415$)

	1	2	3	4	5	6
1. 성별	1					
2. 수용언어	-.193***	1				
3. 표현언어	-.101*	.502***	1			
4. 온정적 양육태도	-.010	.078	.083	1		
5. 위축	.042	-.131*	-.125**	-.254***	1	
6. 공격성	.076	-.127*	-.170*	-.269***	.560***	1
척도의 점수범위	-	0~185	0~185	1~5	0~2	0~2
평균	-	58.47	67.13	3.72	.20	.30
표준편차	-	9.39	10.76	.52	.22	.24
왜도	-	-1.27	-.42	-.02	1.39	.88
첨도	-	2.19	1.18	.52	1.79	.14

주. 남=1, 여=0

* $p < .05$, ** $p < .01$, *** $p < .001$

2. 유아의 언어발달과 위축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조절 효과

가. 유아의 수용언어와 위축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유아의 수용언어와 위축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Hayes(2017)가 제안한 PROCESS macro(model 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용언어를 독립변인, 위축을 종속변인,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를 조절변인, 성별과 표현언어를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유아의 수용언어는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위축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B=-.053$, $p<.001$), 회귀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R^2 값이 .101로 나타났다.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상호작용항의 유의성 검증결과, 유아의 수용언어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상호작용항은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26$, $p<.01$). 이는 유아의 수용언어가 위축에 미치는 영향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표 2> 유아의 수용언어와 위축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 조절효과($N=406$)

	<i>B</i>	<i>SE</i>	<i>t</i>
(상수)	.187	.016	11.538***
통제변인	성별	.022	.602
	표현언어	-.024	-1.952
수용언어(A)	-.008	.012	-.647
온정적 양육태도(B)	-.053	.011	-5.000***
A × B	.026	.011	2.657**
R^2		.101	
<i>F</i>		9.034***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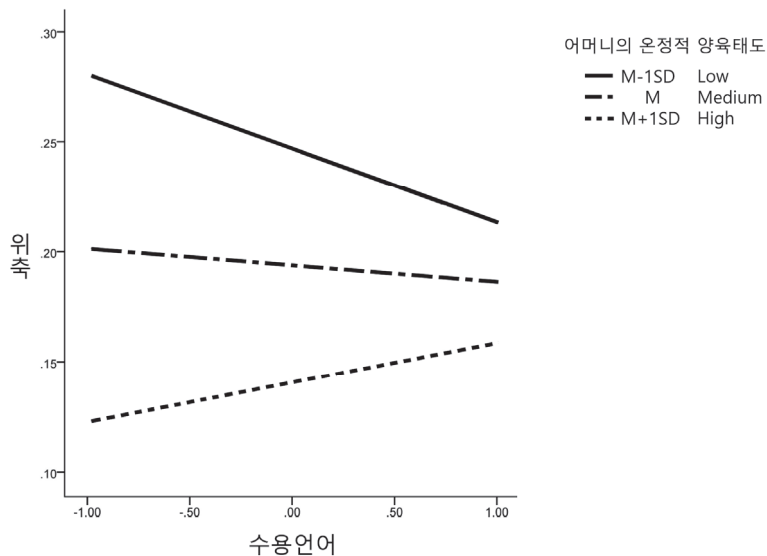
상호작용항이 유의함에 따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조건부효과를 탐색하기 위하여 Johnson-Neyman 기법을 사용하여 조절변수의 유의영역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하위 17.73%인 경우에 유아의 수용언어가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단순 기울기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3>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1 표준편차 이하로 낮은 경우($M-1SD$) 단순 기울기가 $-.034(t=-2.223, 95\% CI[-.064, -.004])$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평균인 경우(M) 단순 기울기가 $-.008(t=-.634, 95\% CI[-.032, .017])$ 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1 표준편차 이상으로 높은 경우($M+1SD$) 단순 기울기가 $.018(t=1.113, 95\% CI[-.014, .050])$ 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 수준이 낮은 경우에 유아의 수용언어 수준이 낮을수록 위축이 높아졌고,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평균수준이거나 평균보다 높은 경우에는 유아의 수용언어가 낮더라도 위축의 정도가 유의하게 달라지지 않았다.

〈표 3〉 유아의 수용언어와 위축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단순 기울기 검증

조절변인		<i>B</i>	<i>SE</i>	<i>t</i>	95%	
					LLCI	ULCI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	<i>M-1SD</i>	-.034	.015	-2.223*	-.064	-.004
	<i>M</i>	-.008	.012	-.634	-.032	.017
	<i>M+1SD</i>	.018	.016	1.113	-.014	.050

* $p < .05$



〔그림 2〕 유아의 수용언어와 위축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나. 유아의 표현언어와 위축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유아의 표현언어와 위축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7)가 제안한 PROCESS macro(model 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현언어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성별과 수용언어를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유아의 표현언어는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B=-.025$, ns),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054$, $p<.001$), 회귀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R^2 값이 .103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상호작용항의 유의성 검증결과, 유아의 표현언어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상호작용항은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18$, $p<.01$). 이는 유아의 표현언어가 위축에 미치는 영향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표 4> 유아의 표현언어와 위축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N=406$)

	<i>B</i>	<i>SE</i>	<i>t</i>
(상수)	.188	.016	11.627***
통제변인	성별	.011	.504
	수용언어	-.008	-.649
표현언어(A)	-.025	.013	-1.964
온정적 양육태도(B)	-.054	.011	-5.157***
A × B	.031	.011	2.810**
R^2		.103	
<i>F</i>		9.217***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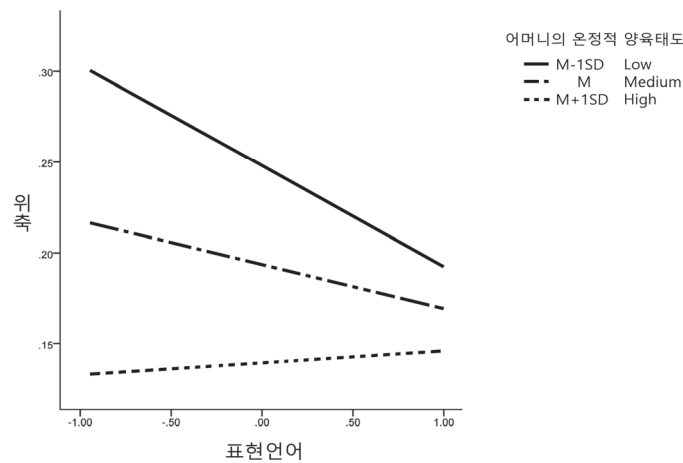
상호작용항이 유의함에 따라 Johnson-Neyman 기법을 사용하여 조절변수의 유의영역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하위 49.3%인 경우에 표현언어가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단순 기울기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5>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1 표준편차 이하로 낮은 경우($M-1SD$) 단순 기울기가 $-.055$ ($t=-3.382$, 95% CI[-.086, -.023])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평균인 경우(M) 단순 기울기가 $-.024$ ($t=-1.948$, 95% CI[-.049, .000])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1 표준편차 이상으로 높은 경우($M+1SD$) 단순 기울기가 $.007$ ($t=.392$, 95% CI[-.027, .040])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평균보다 낮은 경우에 유아의 표현언어 수준이 낮을수록 위축이 높아졌고,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평균이거나 평균보다 높은 경우에는 유아의 표현언어가 낮더라도 위축의 정도가 유의하게 달라지지 않았다.

〈표 5〉 유아의 표현언어와 위축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단순 기울기 검증

조절변인		B	SE	t	95%	
					LLCI	ULCI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	M-1SD	-.055	.016	-3.382***	-.086	-.023
	M	-.024	.013	-1.948	-.049	.000
	M+1SD	.007	.017	.392	-.027	.040

*** $p < .001$



[그림 3] 유아의 표현언어와 위축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3. 유아의 언어발달과 공격성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가. 유아의 수용언어와 공격성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유아의 수용언어와 공격성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7)가 제안한 PROCESS macro(model 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표 6〉과 같다. 유아의 수용언어는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B=-.061$, ns),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257$, $p<.001$). 하지만 유아의 수용언어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상호작용항은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012$, ns).

〈표 6〉 유아의 수용언어와 공격성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N=400$)

		<i>B</i>	<i>SE</i>	<i>t</i>
(상수)		-.063	.074	-.854
통제변인	성별	.105	.098	1.068
	표현언어	-.041	.056	-.723
수용언어(A)		-.061	.056	-1.088
온정적 양육태도(B)		-.257	.048	-5.348***
A × B		.012	.044	.272
R^2				.085
<i>F</i>				7.307***

*** $p < .001$

나. 유아의 표현언어와 공격성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유아의 표현언어와 공격성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Hayes(2017)가 제안한 PROCESS macro(model 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현언어는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B=-.258$, $p<.001$)는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아의 표현언어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상호작용항은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유아의 표현언어와 공격성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 조절효과($N=400$)

		<i>B</i>	<i>SE</i>	<i>t</i>
(상수)		-.067	.074	-.908
통제변인	성별	.106	.098	1.084
	수용언어	-.058	.056	-1.047
표현언어(A)		-.040	.057	-.706
온정적 양육태도(B)		-.258	.048	-5.385***
A × B		.048	.050	.959
R^2				.087
<i>F</i>				7.492***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5세 유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유아의 언어발달과 위축 및 공격성,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유아의 언어발달과 위축 및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조절효과를 갖는지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언어발달과 위축 및 공격성,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수준이 낮을수록 위축 및 공격성 수준은 높았으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낮을수록 위축 및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수용언어 수준이 낮을수록 내재화 행동문제가 증가하였고(신수진·김현명, 2018), 유아의 수용언어 수준이 낮을수록 공격성이 높아졌다는 선행 연구들(박영희·김신곤, 2017; 조채운·권연희, 2014; Menting, Van Lier, & Koot, 2011; Rose, Weinert, & Ebert, 2018)과 일치한다. 또한, 유아의 표현언어 수준이 낮을 때 내재화 행동문제가 높아졌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Tan & Dobbs-Oates, 2013)와 일치하며, 유아의 표현언어 수준이 낮을 때 공격성이 높아졌다고 보고한 연구와도 일치한 결과를 보인다(Girard, Pingault, Doyle et al., 2016). 하지만 유아의 언어발달과 행동문제 간 상관이 없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와는 차이를 보인다(박영숙·이영진·이민경 외, 2017; 조성웅·김월순·임해진, 2020).

내재화 행동문제 중 위축은 유아기에 나타났을 때 발달적 특징으로 간과하기 쉬우나, 지속될 경우 우울, 불안,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동반하게 되므로, 유아기부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양명재·방희정, 2014). 하지만 내재화 행동문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 중 위축을 하나의 차원으로 분류한 국내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 선행 연구를 보면, 위축을 하나의 차원으로서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축의 발달경로를 설명하는 거래 모델(Transaction Model)에 따르면 유아의 위축과 부모의 양육태도는 서로 영향을 받으며 발달하며, 성인기에 이르러 사회 불안이나 우울과 연관된다(Rubin, Coplan, & Bowker, 2013). 부모가 양육에 있어 온정적 태도가 낮고 부적절한 행동 통제를 하게 되면 자녀의 내재화 행동문제의 수준이 높아지며, 반대로 자녀의 행동문제 수준이 높으면 부모는 온정적 태도로 자녀를 대하기보다는 부적절한 행동 통제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였다(Lansford, Godwin, Al-Hassan et al., 2018). 이는 유아의 위축에 있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본 연구에서 유아의 위축과 공격성 간 보인 높은 상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재화 행동문제인 위축과 외현화 행동문

제인 공격성은 서로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으며, 유아의 위축과 공격성이 모두 높은 수준을 보일수도 있고, 둘 중 하나가 높거나 낮을 수 있으며, 둘 다 낮게 경험하는 유아도 있을 것이다. 이는 유아의 행동문제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파악을 위해 대상중심 접근이 필요함을 인식시켜준다.

둘째, 유아의 언어발달과 위축 및 공격성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유아의 언어발달과 위축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아의 언어발달과 공격성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유아의 언어발달과 위축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을 때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낮을 경우 유아의 언어발달 수준이 낮을수록 위축이 더욱 증가하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평균 수준이거나 평균보다 높은 경우에는 유아의 언어발달 수준이 위축에 미치는 영향에 변화가 없었다. 이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낮은 것이 유아의 언어발달이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증가하게 만드는 가중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집단과 내재화 행동문제가 높은 집단에 대한 비교에서 내재화 행동문제가 높은 집단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낮을수록 위축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권수진·오새니·이상희(2016)의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한다.

한편, 유아의 언어발달과 위축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범위가 유아의 수용언어와 위축 간 관계에서는 하위 17.73%, 표현언어와 위축 간 관계에서는 하위 49.3%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수용언어와 위축 간 관계에 비해 표현언어와 위축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더욱 영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언어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유아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언어를 의미와 맥락에 맞게 사용하며 자신의 의견을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한 유아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발달 지연 유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양육태도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 대부분 통제적인 태도가 높고, 온정적 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옥·김명찬, 2015). 이는 차후 언어발달 지연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을 실시할 때 온정적 양육태도의 중요성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언어발달과 공격성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공격성의 유형에 따라 유아의 언어발달과 어머니 양육태도의 영향력이 다르다는 결과를 제시한 선행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예

를 들어 권연희(2011)는 어머니의 거부적 태도는 유아의 관계적, 외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어머니의 온정적 태도는 외현적 공격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유아가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 어려우면 공격성이 증가하나, 관계적 공격성의 경우는 유아의 언어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이성복·신유림, 2010).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언어발달과의 관계를 탐색함에 따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언어 영역에 따라 행동문제와의 관련성이 다를 것으로 보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유아의 언어발달을 수용언어와 표현언어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언어의 두 영역 모두 위축과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조절 효과가 나타났으며, 수용언어에 비해 표현언어와 위축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더 큰 영향력을 보여 주었다. 이는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간의 상관성이 높다하더라도(장선아·김향희, 2001) 언어 영역을 구분하여 탐색할 근거를 확보한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유아의 행동문제를 위축 및 공격성으로 세분화하여 각각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조절자 역할을 하는지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언어발달과 위축 간 관계에서만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가 나타나, 유아의 행동문제 양상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영향이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유아의 특정 행동문제 감소 및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특정 시점에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여 변인들 간 관련성을 살펴본 것으로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다른 차원의 언어 영역과 함께 유아의 언어발달과 위축 및 공격성에서 관련성을 보이는 유아의 성별을 주요 통제 변수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유아의 언어발달에 관련되는 어머니의 학력과 같은 인구학적 변인도 고려될 필요성이 있겠다. 셋째, 유아의 위축은 신뢰도가 .66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한국아동패널의 6차년도 전체 표본 1,662가구 가운데 2차 심층조사에 참여한 415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표본 수의 큰 감소가 신뢰도를 낮추는 원인으로 보인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유아기는 생애 주기 중 모든 영역의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 시기에 제공되는 적절한 자극 및 보살핌 경험을 통해 성장을 위한 밑바탕을 다지게 된다. 하지만 이

시기에 반복되는 욕구좌절이나 환경적 결핍을 경험하게 되면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 육아정책연구소 보고서(도남희·민정원·왕영희 외, 2013)에 따르면 보육 교사를 대상으로 학급 내 행동문제를 보이는 유아에 있는지에 관한 설문에 60% 이상이 '있다'로 응답함으로써 유아기 행동문제의 비중이 높고, 특히 정서발달 및 사회성 발달의 어려움이 크다고 하였다. 이에 유아 행동문제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방안 모색에 있어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유아의 행동문제 양상에 따라 부모교육의 내용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적고, 많은 정보 속에서 내 자녀에게 맞는 양육방법이나 양육태도를 습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김길숙, 2017),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모 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자녀가 또래에 비하여 언어발달이 느린 경우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 통제적이고 거부적 양육태도가 애정적, 자율적 양육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유아의 언어발달을 더욱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므로(김지옥·김명찬, 2017), 부모 교육을 통해 양육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유아의 언어발달과 위축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지만, 유아의 언어발달과 공격성 간 관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조절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유아의 행동문제 양상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다르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아의 행동문제 양상에 따라 부모교육의 내용이 달라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았을 때 유아의 위축을 예방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를 강조 할 필요가 있으며, 유아기에 발현되는 위축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먼저, 유아가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일 때 부모는 유아가 사회적 관계 형성을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른 유아에게 다가가기를 권유하게 된다. 하지만 유아가 타인과 상호 작용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성향에 대한 부모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행동을 강요받게 되면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이러한 위축의 발달 양상을 이해하고, 온정적 양육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부모교육이 필요하겠다.

둘째, 위축을 보이는 유아는 선별적으로 유아의 언어발달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위축은 주변 상황에 무관심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Gazelle & Ladd, 2003), 유아의 언어발달 수준과 상관없이 유아가 회피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유아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수준이 낮을수록 위축이 높다는 결과를 보았을 때, 유아의 위축에서 언어발달의 관련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위축을 보이는 유아들은 언어발달의 개

인차가 사회적 적응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Asendorpf, 1994). 따라서 위축의 발현에 유아의 언어발달 수준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은 보다 적절한 조기 개입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유아의 언어발달 수준이 높은 것이 위축을 보이는 유아의 사회적 적응에 도움이 된다면 위축을 보이는 유아와 어머니를 위한 부모교육에 유아의 언어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이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유아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변인들이 한국아동패널조사에 추가될 필요가 있겠다. 이중언어에 노출될 수 있는 다문화 가정의 특성 조사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유아는 단일 가정 유아에 비하여 언어발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황경숙·성승연, 2014), 그 원인으로 유아에게 제공되는 환경에서 언어 자극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전경숙, 2017). 한국아동패널은 보호자의 국적을 조사하면서 다문화 가정 유무를 파악하고 있으나, 유아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문화 가정 부모의 한국어 능력과 같은 특성은 조사되지 않은 실정이므로, 추후 국가 차원의 패널 조사에 다문화 가정 관련 특성 조사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

참고문헌

- 고보선·성지현(2019). 유아의 사회적 위축과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관계: 교사-유아 관계 및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2(1), 45-67.
- 권수진·오새니·이상희(2016). 유아의 문제행동 관련변인 연구: 유아변인, 어머니변인, 또래관계변인.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3(4), 385-406.
- 권연희(2011). 유아의 관계적 및 외현적 공격성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 정서조절, 어머니양육행동의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0(5), 927-940.
- 김길숙(2017).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현황 및 내용분석 연구. *열린부모교육연구*, 9(4), 273-291.
- 김대웅·박윤현(2018).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온정적 양육행동, 유아 전자매체 이용시간, 외현화 문제 행동의 관계: 성별 다집단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23(6), 135-156.
- 김영실·신애선(2013). 영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른 영아의 이해언어 및 표현언어 능력. *어린이미디어연구*, 12(3), 157-176.
- 김영태(2011). 아동언어장애의 진단 및 치료. *서울: 학지사*.
- 김영태·강진경·김정아(2019). 아동의 언어능력과 사회정서발달의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4(2), 274-287.
- 김영태·홍경훈·김경희·장혜성·이주연(2009).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 *서울: 서울장애인종합*

복지관:

- 김은비(2012). 환경요인에 따른 언어습득능력의 차이에 관한 연구. *에니어그램연구*, 9(1), 107-137.
- 김지옥·김명찬(2015). 언어발달지연 아동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성과 정서표현에 미치는 영향. *언어치료연구*, 24(3), 103-120.
- 도남희·민정원·왕영희·김소아·엄지민·이예진(2013). *한국아동패널 2013*.
- 박영숙·이영진·이민경·김혜경(2017). 유아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과 자아탄력성, 놀이성, 언어능력 간의 관계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35(1), 95-121.
- 박영희·김신곤(2017).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언어능력 간의 관계: 또래 놀이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21(5), 219-238.
- 배은희·이소연(2019).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이용한 종단연구. *아동연구*, 31(1), 26-45.
- 서미정(2014). 아동과 청소년의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동향 및 추후 연구과제. *아시아교육연구*, 15(2), 141-169.
- 송미옥·이경호(2017). 유아 공격성에 관련변인이 미치는 영향: 유아, 어머니 변인 중심으로. *발달장애연구*, 21(1), 69-96.
- 신수진·김현명(2018). 유아의 기관적응과 주의집중력, 문제행동, 언어능력 간의 관계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22(4), 173-196.
- 양명재·방희정(2014). 유아의 수줍음, 인지능력,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의 위축 및 불안·우울 간의 관계: 양육행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30(4), 363-386.
- 오경자·김영아(2009). CBCL 1.5-5 유아행동평가척도. *서울: (주)휴노컨설팅*.
- 윤혜련·김영태(2004). 성별에 따른 영유아 언어발달의 특성 연구: SELSI를 중심으로.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9(1), 30-44.
- 이성복·신유림(2010). 어머니 거부/방임적 양육태도, 유아의 기질 및 보육 경험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의 증재효과를 중심으로. *가정과삶의질연구*, 28(3), 73-80.
- 이승은(2018). 어머니의 양육태도, 아버지 양육참여 및 유아의 공격성과 관계 연구. *인격교육*, 12(2), 69-94.
- 이승하·민가혜·연구승(2020). 유아의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과 인지능력, 갈등해결능력, 운동능력 간의 관계성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0), 455-481.
- 이효림·정효진·정정희·이지연(2020). 유아의 놀이성과 언어능력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차를 중심으로.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8(1), 113-143.

- 임현주(2015). 유아의 성별에 따른 내재화,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5(2), 97-115.
- 임현주(2018). 유아의 성별과 자아존중감에 따른 언어·수학능력 차이분석. *열린부모교육연구*, 10(4), 71-90.
- 장선아·김향희(2001). 정상아동과 말-언어장애아동의 수용 및 표현 어휘력에 관한 연구.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5(2), 1-22.
- 전경숙(2017).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의 효과성 연구.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2(2), 81-106.
- 전은주(2015).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공격성 간의 구조적 관계와 유아의 기질에 따른 잠재평균분석. *육아지원연구*, 10(4), 97-119.
- 정진나(2019). 5세 언어능력과 7세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 성별 차이 및 자기통제의 종단적 매개효과 검증. *아동학회지*, 40(3), 27-38.
- 조복희·이진숙·이홍숙·권희경(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7(10), 123-133.
- 조성웅·김월순·임해진(2020). 유아의 문제행동과 사회적 기술, 언어능력, 부부갈등 간의 관계 및 영향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 1127-1150.
- 조채운·권연희(2014).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지능 및 언어능력의 역할. *한국보육학회지*, 14(1), 51-72.
- 최인숙(2014). 유아의 언어능력 및 정서조절능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또래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정과삶의질연구*, 32(6), 47-58.
- 하은빈(2012). 말 늦은 아동(late-talker)과 일반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아동 간 의사소통 특성 비교.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경숙·성승연(2014). 교류분석을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내외 통제성과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9(1), 29-51.
- 황혜정(2005). 유아의 문제행동 진단을 위한 부모용 교사용 검사 개발 연구. *유아교육연구*, 25(2), 235-257.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 (1979). The Child Behavior Profile: II. Boys aged 12-16 and girls aged 6-11 and 12-16.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2), 223-233.
- Aiken, L. S.,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Thousand Oaks, CA: Sage.
- Asendorpf, J. B. (1994). The malleability of behavior inhibition: A study of individual developmental fun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30(6), 912-919.

- Bell-Dolan, D. J., Reaven, N. M., & Peterson, L. (1993). Depression and social functioning: A multidimensional study of the linkage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2*(3), 306-315.
- Bishop, D. V., & Adams, C. (1990). A prospectiv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phonological disorders and reading retardat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1*(7), 1027-1050.
- Chess, S., & Thomas, A. (1977). Temperament and the parent-child interaction. *Pediatric Annals, 6*(9), 26-45.
- Clegg, J., Law, J., Rush, R., Peters, T. J., & Roulstone, S. (2015). The contribution of early language development to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ural functioning at 6 years: an analysis of data from the Children in Focus sample from the ALSPAC birth cohor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6*(1), 67-75.
- Denham, S. A., & Holt, R. W. (1993). Preschoolers' likability as cause or consequence of their social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29*(2), 271-275.
- Gazelle, H., & Ladd, G. W. (2003). Anxious solitude and peer exclusion: A diathesis-stress model of internalizing trajectories in childhood. *Child Development, 74*(1), 257-278.
- Girard, L. C., Pingault, J. B., Doyle, O., Falissard, B., & Tremblay, R. E. (2016). Developmental associations between conduct problems and expressive language in early childhood: A population-based stud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4*, 1033-1043.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 Lansford, J. E., Godwin, J., Al-Hassan, S. M., Bacchini, D., Bornstein, M. H., Chang, L., ... & Zelli, A. (2018).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parenting and youth adjustment in twelve cultural groups: Cultural normativeness of parenting as a moderator. *Developmental psychology, 54*(2), 362-377.

- Menting, B., Van Lier, P. A., & Koot, H. M. (2011). Language skills, peer rejection, and the development of externalizing behavior from kindergarten to fourth grad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2(1), 72-79.
- Rose, E., Weinert, S., & Ebert, S. (2018). The roles of receptive and productive language in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Social Development*, 27(4), 777-792.
- Rubin, K. H., Coplan, R. J., & Bowker, J. C. (2009).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141-171.
- Sameroff, A. (2009). *The transactional model*. In A. Sameroff (Ed.), *The transactional model of development: How children and contexts shape each other*.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anson, A. (1996). Shyness ratings: Stability and correlates in early childhood.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4), 705-724.
- Tan, M., & Dobbs-Oates, J. (2013). Relationship between emergent literacy and early social-emotional development in preschool children from low-income background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3(11), 1509-1530.
- Tremblay, R. E. (2000).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ur during childhood: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2), 129-141.

- 논문접수: 8월 3일 / 수정본 접수 9월 13일 / 게재 승인 9월 20일
- 교신저자: 고영아, 제주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석·박사통합과정, fany2016@hanmail.net

Abstract

The Relationships of Language Development to Withdrawal and Aggression among Preschoolers: Moderating Effect of Mother's Warm Parenting

Mijung Seo and Young Ah Ko

This study seeks to examine how mother's warm parenting moderates the relationship of preschooler's language development to withdrawal and aggression. For this purpose, 415 households with children aged 5 years old from the 6th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were se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and Model 1 in PROCESS macro. As a result, the lack of receptive and expressive language of preschooler increased withdrawal only when the mother's warm parenting was insufficient. But, there was no moderating effect of mother's warm parent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er's language development and aggression. Based on this result, it was discussed that the mother's warm parenting is important in reducing preschooler's withdrawal, and that it is necessary to explore various moderate variabl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er's language development and aggression.

Keyword: withdrawal, aggression, language development, mother's warm parenting